



“전 세계에 내 이름 알리겠다” 태극마크 김도영의 원대한 포부

“대표팀에 뽑히게 되어 너무 영광스럽고 전 세계에 저를 알리고 올 생각이다.”

“제2의 이종범”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프로 무대에 데뷔한 KIA 타이거즈의 2년 차 내야수 김도영이 성인 대표팀에 승선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

동성고를 졸업한 뒤 지난해 KIA에 입단한 김도영은 103경기에서 타율 2할3푼7리(224타수 53안타) 3홈런 19타점 37득

**동성고 졸업 후 지난해 KIA 입단
올시즌 부상 불구 타율 0.303 활약
오는 16일부터 APBC 대표팀 발탁
“중요한 순간 안타 치고싶다” 바람**

점 13도루를 기록했다. 김도영은 데뷔 첫해의 경험을 발판 삼아 올 시즌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이였다. 뜻하지 않은 부상으로 잠시 침표를 찍기도 했지만 84경기에 출장해 타율 3할3리(340타수 103안타) 7홈런 47타점 72득점 25도루를 찍었다.

오는 16일부터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APBC) 대표팀에 발탁된 그는 “대표팀에 뽑히게

되어 너무 영광스럽고 전 세계에 저를 알리고 올 생각”이라며 “큰 거 하나 하고 와야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안타를 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일본 대표팀의 투수들과 상대하고 싶다는 김도영은 “팀 선배님들께서도 일본 투수들과 한 번 상대해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 스스로도 (일본 투수들이) 어떤지 궁금하다. 이번에 영상으로 보긴 했는데 공이 되게 좋더라. 한 번 쳐보고 싶다”고 말했다. APBC 대표팀 타자들은 김도영의 타격 훈련을 지켜보며 “치는 게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김도영은 “이곳에 있는 선수들 모두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표팀에) 뽑힌 것”이라고 자신을 낮췄다.

프로 데뷔 후 단 한 번도 우승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이기에 이번 대회에서 정상 등극을 목표로 내세웠다. “호주, 일본, 대만 선수들 모두 실력이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우승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도영은 올 시즌을 되돌아보며 “수치상 성적은 확실히 좋아졌지만 아직도 시즌 중에 후회되는 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팀 선배 나성범과 함께 웨이트 트레이닝 훈련을 했던 효과를 제대로 봤던 그는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있고 오프시즌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해마다 전반적인 성적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올 시즌 펜스 상단을 때리는 타구가 많았는데 내년에는 (담장 밖으로) 다 넘길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 요스바니·정관장 메가, 프로배구 1라운드 MVP

**요스바니, 통산 3번째 라운드 MVP 수상
메가, 아시아쿼터 선수 최초 수상자 등극**

프로배구 남자부 삼성화재 요스바니(32)와 여자부 정관장 메가(24)가 V-리그 1라운드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8일 “도드람 2023-2024 V-리그 1라운드 MVP로 요스바니와 메가가 선정됐다”고 알렸다.

요스바니는 남자부 기자단 투표 31표 중 26표를 획득했다. 마테이가 3표, 정관장이 1표를

받았고 기권 1표가 나왔다.

요스바니의 통산 3번째 라운드 MVP 수상이다. 지난 2018-2019시즌 1라운드와 2020-2021시즌 6라운드에서 MVP를 차지한 바 있다.

요스바니는 1라운드에서 161점을 기록하며 득점 1위에 올랐고, 성공률 56.18%로 오픈 공격에서도 선두에 자리하고 있다. 공격성공률 55.81%로 공격 종합 3위, 세트당 0.33개로 서브 4위에 오르는 등 팀의 1라운드 5연승을 이끌었다.

여자부에서는 메가가 기자단 투표 31표 중

15표를 얻었다. 실바가 8표, 김연경이 6표, 부키리치가 1표를 획득했고 나머지 1표는 기권 표였다.

메가는 1라운드에서 138점을 기록하며 득점 4위, 공격성공률 48.46%로 공격 종합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오픈 공격(성공률 49.23%), 후위 공격(성공률 40.91%), 퀵오픈(성공률 51.22%)에서 2위를 마크하며 팀의 4승 수확에 공헌했다.

메가는 아시아쿼터 선수로는 처음으로 V-리그 MVP 수상자가 되는 영광을 누렸다.

K리그1 전북 “몰수패 요청 기각 존중…재발 안 하길”

포항전 ‘교체 실수’ 사건 몰수패 요청 기각 수용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가 교체 실수 사건에 대한 몰수패 요청을 기각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북 구단은 7일 성명을 통해 “유감스러우나, 연맹의 결정과 의견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후 규정이 공평하고 일관적으로 해석 및 적용돼 이번 사태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맹은 지난달 2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5라운드 전북과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 결과를 포항의 0-3 몰수패로 결정해야 한다는 전북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해당 경기에선 심판의 실수로 교체 대상인 포항 김인성이 그라운드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심판이 투입돼 기록상 12명의 포항 선수가 6분간 뛰게 됐다.

포항 풀백 김용환이 부상으로 쓰러져 그라운드 밖으로 나와 있는 가운데 같은 포지션의 심판이 들어가야 했지만, 포항이 실수로 교체 용지에 김용환이 아닌 김인성의 이름을 적었다.

심판이 교체 용지대로 선수를 교체했다면 규정상 문제가 없었으나, 심판과 교체되는 선수를 김용환으로 착각해 김인성이 계속 뛰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전북은 무자격 선수가 경기에 참여하면 해당 선수의 소속 구단이 0-3 몰수패 한 것으로 간주하는 연맹 규정을 근거로 포항의 몰수패를 주장했다.

그러나 연맹은 포항의 귀책 사유가 없어 무자격 선수의 개입에 김인성과 심판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전북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스

20승 투수 NC 페디, 빅리그 복귀할까… “MLB 구단들 관심”

**켈리·플렉센 언급하며 복귀 예상
“최동원상 수상 충분…강력했다”**

NC 다이노스 에릭 페디(30)가 메이저리그(MLB) 구단들의 영입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MLB 이적 소식을 다루는 MLB트레이드투머스는 8일(한국시간) MLB 전문 칼럼니스트 존 헤이먼의 말을 인용해 “KBO리그 NC에서 2023년을 보낸 페디가 MLB 구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페디는 30경기에 선발 등판해 180% 이닝을 던졌고 평균자책점 2.00을 기록했다. 볼넷 허용률 4.9%, 탈삼진 비율 29.5%, 땅볼 생산율 70%를 남겼다. 올해 MLB 땅볼 비율은 42.5%였다”며 “전체적인 성적을 보면 페디가 매년 리그 최고의 선발 투수에게 주어지는 최동원상을 수상하기에 충분했다. 그만큼 강력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NC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에 입성한 페디는 30경기 20승 6패 평균자책점 2.00의 빼어난 성적을 냈다. 다승과 평균자책점, 탈삼진(209개) 부문을 석권하는 투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고, 단일 시즌 20승 200탈삼진을 동시에 작성했다.

페디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MLB 워싱턴 내셔널스에서 뛰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진 못했다. 통산 102경기에 등판해 21승 33패



평균자책점 5.41을 작성했다.

MLB트레이드투머스는 KBO리그를 거쳐 MLB로 역수출된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페디가 많은 구단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MLB트레이드투머스는 “한국에서 잠시 활동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북미 투수들의 결과는 메릴 켈리부터 크리스 플렉센, 조시 린드블럼까지 다양하다”면서 “뛰어난 2023시즌 성적과 전직 최고 유망주로서의 지위를 보면, 페디는 시장에서 많은 구단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켈리는 2018년 12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와 2년 550만 달러에 계약하고 빅리그 복귀에 성공했다. 1년 뒤 린드블럼이 밀워키와 3년간 912만5000달러에 계약했고, 플렉센은 2021시즌을 앞두고 시애틀 매리너스와 2년 475만 달러에 사인했다.

MLB트레이드투머스는 페디가 훌륭한 시즌을 보낸 점과 유망주 시절 등을 고려하면 앞서 MLB에 복귀한 투수들을 능가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정상급 투수들의 계약 규모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후, 美 매체 선정 FA 18위…샌프란시스코행 전망

“통산 출루율 0.407…FA 외야수 중 가장 어려”

빅리그 진출을 노리는 이정후(25)가 현지 매체가 선정한 프리에이전트(FA) 랭킹에서 18위에 올랐다.

미국의 스포츠 매체 스포츠일러스테이트(SI)는 8일(한국시간) 이번 비시즌 메이저리그(MLB) FA 상위 50명을 공개했다.

SI는 이정후에 대해 “2022년 KBO리그 MVP였고, 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이다. 외야 세 자리를 모두 소화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힘이 뛰어난 않지만, 출루 능력을 갖췄다. 지난 3년간 기록한 삼진 92개보다 거의 2배나 많은 볼넷 177개를 얻어냈다. 통산 출루율은 0.407이다”라며 “25세의 이정후는 FA 외야수 중 가장 어려다”며 출루율과 어린 나이에 주목했다.

예상 행선지로는 현지 매체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꼽았다.

2017년 프로에 데뷔한 이정후는 KBO리그 7시즌 동안 통산 타율 0.340 65홈런 1181안타 515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898의 호성적



을 거뒀다.

지난 시즌에는 타율, 최다안타, 타점왕, 출루율, 장타율 1위를 차지하면서 타격 5관왕에 올랐고 생애 첫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에도 선정됐다. KBO리그에서 7시즌을 채운 이정후는 올 겨울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미국 무대에 도전할 예정이다.

FA 랭킹 1위는 이번 시장의 최대어로 불리는 오타니 쇼헤이(29)다. MLB 진출을 타진하는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26)와 이마나기 쇼타(30)는 각각 5위,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FA 랭킹 18인 이정후는 타자 중에서는 8위다.